

멀티미디어 시대에 대한 나의 관심



권재석

18세기 후반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 인간사회는 농경사회이전에 상상할수도 없었던 많은 양의 물질을 생산하게 되었고 좋고 나쁨의 기준을 물질은 보다 많이 보유하거나 적게 보유하거나 하는 것으로 구분하는 이상한(?) 가치관을 갖는 경향이 짙어졌다. 개인적으로 더 바람직한 가치는 많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써 행복해 질 수 있다고 믿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어쨌든 산업사회에서의 생산

약력 : • 73~82 제일모직 • 83~90 (주)신세계 전산실장 • 91~94 삼성데이터시스템(주) 이사 • 95~96 (주)신세계백화점 상무이사 • 96~현재 (주)신세계 & C 대표이사

물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만족과 행복을 안겨주었고 정보화 사회로 전환되면서 생산물의 개념은 산업사회의 생산물이었던 공산품과 축적된 자본에 덧붙여 손에 만질 수는 없지만 부가가치가 더욱 큰 정보라는 것까지 확대되었다.

정보화 사회의 주역이라고 자부하는 우리 정보처리 전문가들, 각 회사의 컴퓨터 시스템이 처리하여 생성하는 정보만이 유일한 정보인 줄 착각하며 일하는 우리 전문가를 이제 멀티미디어 시대에 살면서 이 시대에 중요한 정보가 무엇이며 우리가 지금부터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의 업무영역을 넓혀 나가야 할 분야가 어딘가를 생각해 보고자 이 글을 적어본다.

인생을 70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미디어에 투자하는 시간은 점점 많아지고 있음을 느낀다. 음악을 듣거나 TV, 영화를 보다가 이제 게임에, PC통신에 이어 이제 인터넷에 빠져 있는 시간이 기하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욕구충족을 위해 수렵을 하고 농사를 짓던 인간은 이제 인터넷을 비롯한 미디어를 통해서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는 것이다. 보다 우수한 미디어를 개발하고 고급의 정보를 쉽게 구하려고 하며 보고 듣고 심지어는 향기와 촉감까지도 느끼려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콘텐츠들은 보다 세련되고 다양해 질 것이고 최고의 콘텐츠와 미디어를 확보하는 일은 마켓팅권을 잡거나 고시에 합격하거나 재벌이 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될 지도 모른다.

세련된 콘텐츠를 만드는 일...그 중 일부겠지만 멋진 스포츠카를 디자인하거나 전세계사람을 열광케 한 애니메이션 영화 한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드는 게임, 너무너무 갖고 싶게 그려진 워크맨, 살아있는 듯 움직이는 캐릭터를 만드는 사람들과 그 일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각광 받는 지위가 될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변변한 솔루션하나 없지만 한 장의 캐릭터 사진이 사진기의 10개 값을 능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민족이 가진 창의성과 상상력은 이 분야에서 앞으로 어떤 큰 일을 벌일지 모른다고 기대해 본다. 최근 국가 차원에서 21세기 전략적 추진과제로 CG산업을 육성하고 대학 및 중등교육기관에서까지 이 분야에 관심과 투자를 집중하는 시류는 이미 대세라고 보여지며 부존자원 없이 이제 인건비마저 선진국 수준으로 비싸진 한국경제에 이 분야는 또 다른 기회임을 확신한다.

전자(電子)의 세계는 무한하고 무료다.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고 손재주가 좋다는 우리가 이 전제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애니메이션 시장은 캐릭터와 공중파를 포함 전세계적으로 1000억달러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고 한다. 산업디자인분야에서 디자인 자체가 제품의 결정적인 경쟁력이 된지는 이미 오래다. VR이나 시뮬레이션, 3D 게임은 앞으로 인간생활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우리가 이미 경험해서 알고 있듯이 영화 속에서 보던 일들은 곧 현실이 될 것이다. 어셈블러를 쓰던 컴퓨터는 이제 강아지도 만든다는 인터넷 환경으로 변했고 시간과 거리를 개념을 바꾸어 버렸다. “Binary Code”는 “text”를 거쳐 “Visual Graphic”으로 발전했고 이에 맞춰

우리의 패러다임도 심각하게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디지털의 시대라고 한다. 무한 복제의 시대다. 최고만이 살아남고 살아남은 한가지가 세계를 지배한다. 우리는 지금 20세기말 또 다른 산업혁명의 시기에 살고 있다. 이번에도 뒤쳐질수는 없지 않은가?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서 우리 정보처리 전문가들에게 부여되고 있는 또 다른 과제가 업무영역을 멀티미디어 시대에 맞는 업무영역으로 조장하고 새로운 분야인 멀티미디어 분야에 대해 도전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